



프로데뷔 준비하는 'F4'의 포부

왼쪽부터 신범수, 이승우, 이진영, 최원준.

- 내야수 최원준
- 안방마님 신범수
- "호타준족"
- "공격형 포수"
- 외야수 이승우
- 외야수 이진영
- "홈런 타자"
- "수비 달인"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아마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티베팅에 손바닥 가득 물집이 잡혔다. 신범수는 얼마 전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식은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 코칭 스태프를 놀라게 했다. 최원준은 24일 훈련에 앞서 코피를 쏟기도 했다.

2016 신인들의 생애 첫 캠프가 이렇게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KIA의 마무리 캠프에는 신범수(포수), 최원준(내야수), 이승우·이진영(이상 외야수) 등 내년 시즌 프로 데뷔를 준비하는 4명의 신인이 있다. 모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0대 선수들. 아직은 어린 선수들에게 이번 캠프는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다. 서로 의지가 되었던 신인 4인방은 남은 시간 연습 없이 캠프를 완주를 하고 스프링 캠프에서 다시 땀을 흘리자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빠른 발로 어필하고 있는 최원준은 "캠프에 와서 부족했던 것을 많이 배웠다. 수비를 특히 많이 배웠다.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했다. 또 운동할 때 소극적이었는데 훈련 분위기도 좋고 많이 배웠다. 오랜만에 시합을 해서 재미있기도 했다. 빠르게 타를 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서 같이 고생한 동기들과 스프링 캠프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격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캠프가 이승우에게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됐다. 홈런 타자를 꿈꾸는 이승우는 "처음

에 프로의 캠프를 간다고 했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운동하는 분위기도 좋고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떻게 야구를 해야 할 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목표를 세우게 됐다.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배웠다. 송구 등 힘으로만 야구를 했던 것이 있는데 많이 배우면서 안정감을 더하게 됐다.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잘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범수에게도 내·외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공적인 캠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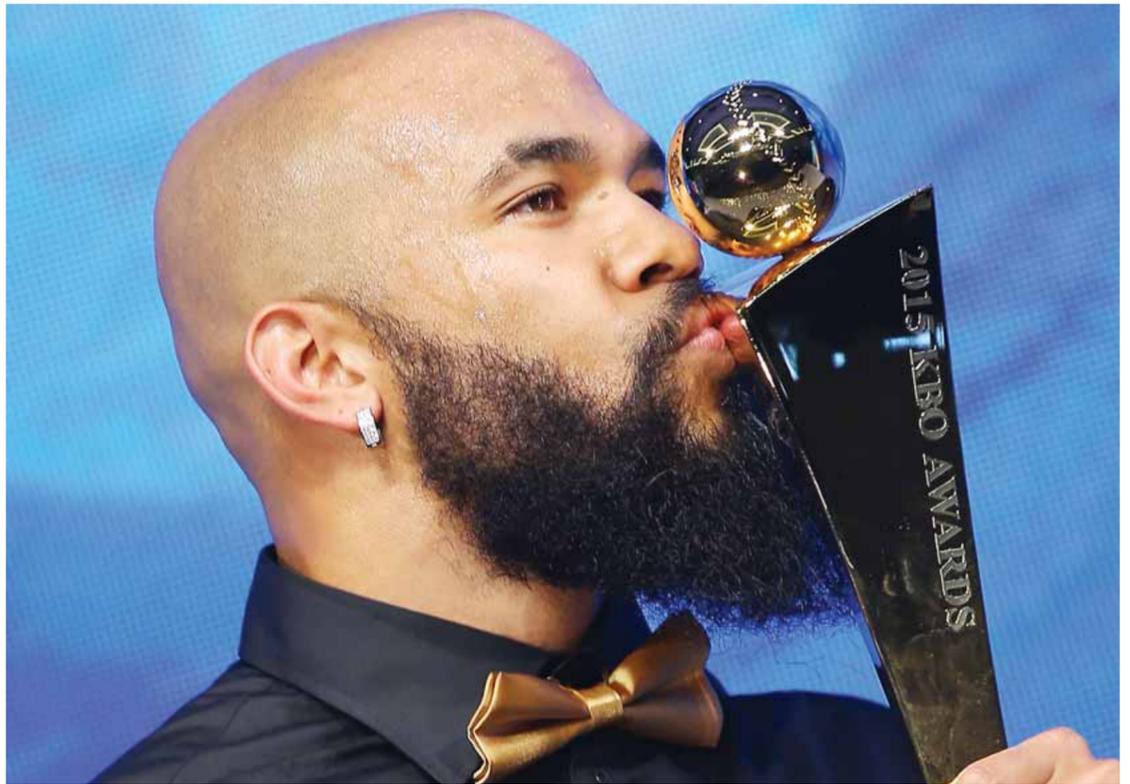
'꼬마 포수' 신범수는 "땀이 배운 것 같아 뿌듯하다. 수비적인 부분, 시합할 때 움직임과 투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몸 더 만들고 준비를 많이 하겠다. 포수 여도 타석에서 기회가 오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고 캠프의 시간을 돌아봤다.

형들을 보면서 야구를 다시 보게 됐다는 이진영의 즐거웠던 캠프도 끝나가고 있다.

이진영은 "(김)호령이 형이라든가 선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수비를 많이 배웠다. 타격 폼도 간결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분위기도 좋았고 재미있었다. 경기를 하면서 많이 긴장도 하기는 했는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강한 어깨가 장점이다.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장점을 어필해서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이 땀방울이 타임즈를 만들었다



24일 오후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타이거즈 KBO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된 NC 에릭 테임즈가 트로피에 키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리그에 수많은 이정표를 세운 에릭 테임즈(29·NC 다이노스)가 2015 KBO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테임즈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MVP·신인상 시상식에서 MVP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유효투구수 99표 중 50표가 테임즈에게 돌아갔다.

테임즈는 올해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40홈런-40도루를 달성하며 리그 정상에 오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테임즈는 올 시즌 굵직한 기록으로 KBO의 새 역사를 썼다.

그는 7월 3일 대전 한화전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 고지를, 지난달 28일 마산 한화전에서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며 '호타준족'임을 입증했다.

이날 40-40 달성으로 테임즈는 '거포 대도'의 경지를 보여줬다.

테임즈의 30-30은 KBO 통산 8호이자, 2000년 박재홍(당시 현대) 이후 15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또 한 시즌에 두 번의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최초의 선수도 바로 테임즈다.

테임즈의 시즌 홈런 개수는 47개로 리그 3위다. 도루는 40개로 박해민(삼성·60개), 박민우(NC·46개), 이대형(케이티·44개), 김중호(NC·41개)에 이어 5위다.

그는 타율(0.381)·장타율(0.790)·출루율(0.497)·득점(130개) 등 타격 4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이날 상을 휩쓸었다.

NC 테임즈 MVP 수상

한국 스타일 적응 위해

끊임없이 타격 연습하고

소외아동 돕기도 앞장

삼성 구자욱 신인상 수상

테임즈는 노력을 토대로 한 성장으로 이 같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테임즈는 NC에서 손꼽히는 연습벌레다. 정해진 타격 훈련 시간이 끝나면 자신만의 루틴에 맞춰 끊임없이 타격 연습을 한다.

그에 맞춰 성적도 올랐다. 지난해 그는 125경기에서 타율 0.343, 37홈런, 95득점, 121타점, 11도루를 기록했다. 올해는 142경기에서 타율 0.381, 47홈런, 130득점, 140타점, 40도루를 달성했다. 한국에서 발전한 것은 적응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테임즈는 "한국 스타일의 야구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 마음의 안정을 하는 것을 배웠다"며 "미국에서는 매 타석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라인업에 항상 들어간다는 안정된 마음으로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돌아봤다.

야구장 안에서는 '공포의 타자'지만, 야구장 밖에서는 늘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고, 지역 소외 아동을 돕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모범적인 행실로 사랑을 받은 테임즈다.

테임즈는 외국인 선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가했다.

NC 관계자는 "테임즈는 MVP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시상식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테임즈는 자신의 수상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경합을 받았던 박병호(29·넥센), NC의 퓨처스리그 팀인 고양 다이노스의 타율



신인상을 수상한 삼성 구자욱.

테임즈는 외국인 선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가했다.

NC 관계자는 "테임즈는 MVP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시상식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테임즈는 자신의 수상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경합을 받았던 박병호(29·넥센), NC의 퓨처스리그 팀인 고양 다이노스의 타율

왕 김태진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시상식을 즐겼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NC 유니폼을 입는 테임즈는 이날 한국 선수들과 깊은 정까지 나누는 모습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그는 아예 "내년에는 문법에 맞게 한국어를 말하고 싶다. 한국어 교재를 샀다"며 더 좋은 활약을 예고했다.

또한 2015년 신인왕은 구자욱(2·삼성 라이온즈)이 거머쥐었다.

프로야구 취재기자단 투표 결과 구자욱은 총 유효표 100표 중 60표를 얻어 김하성(넥센 히어로즈), 조무근(케이티 위즈)을 제치고 신인왕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을 손에 넣었다.

삼성은 2011년 배영섭 이후 4년 만에 신인왕을 배출했다.

구자욱은 2012년 입단해 1군 무대에는 진 입하지 못하고 2013년 입대했다.

올해 팀에 복귀한 구자욱은 스프링캠프 때부터 화제를 모았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구자욱은 정규시즌에서 채태인, 박한이, 박석민 등의 부상 공백을 메우며 116경기에 나섰다.

올 시즌 성적은 타율 0.349, 11홈런, 57타점, 17도루다. 생애 처음 밝은 1군 무대에서 타율 3위에 오르는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정확도와 힘, 주력을 겸비한 모습이 표심을 자극했다. /연합뉴스

'빈손' 손아섭 포스팅 응찰 ML구단 한 곳도 없어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수 손아섭(27)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허무하게 무산됐다.

KBO는 24일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손아섭에게 응찰액을 제시한 구단이 없음을 통보받고 이를 롯데 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아섭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단계에서 종료됐다. 롯데는 손아섭의 포스팅이 유찰됨에 따라 수일 내에 내야수 황재균(28)에 대해 포스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우선 황재균에게 의사를 물어보아야 한다"며 "황재균이 현재 훈련소에 있기 때문에 포스팅에 들어가기까지는 며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아섭은 올 시즌 타율 0.317에 13홈런, 54타점, 11도루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6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현역 선수 가운데 통산 타율 1위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교타자라는

점에서 포스팅 유찰은 의외의 결과다.

더군다나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강정호나 최근 미네소타 트윈스로부터 포스팅 금액으로만 1천285만달러를 제시받은 박병호의 성공 사례가 있었기에 금액이 문제일 뿐 손아섭을 노리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한두 곳은 나타날 것으로 보였다.

미국 현지에서도 불티모어 오리올스가 물망에 오르는 등 손아섭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번죽만 울렸을 뿐 끝내 손을 내미는 구단은 없었다.

시기적으로 원터미팅 이전에 포스팅 시기를 잡은 것이 유찰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미 몇 차례 실패 사례가 나온 일본인 교타자들에 의해 현지에서의 기대감이 떨어진 점, 크지 않은 체구와 뛰어나지 않은 수비력도 저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박세리 위에 박인비

메이저 최다승·커리어 그랜드 슬램·총상금 등 앞서

2016년 LPGA 명예의 전당 입회...한국인 두번째

한국인 최다승 맹추격

박인비(27·KB금융)는 '세리키즈'의 일원이다.

박세리(38)가 1998년 맨발 투혼으로 US 여자오픈을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박세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따라 걸었다.골프 선수로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등대가 박세리였다.

박인비는 2016년 시즌을 마치면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된다. 한국인 1호 회원 박세리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5승을 보낸 박인비는 통산 17승으로 박세리의 한국인 최다승(27승)을 맹렬

하게 추격하고 있다.

하지만 박인비는 이미 박세리를 넘어선 분야가 적지 않다. 작년 LPGA 챔피언십을 제패하자 한국인 메이저대회 최다승 기록 보유자 이름은 박세리에서 박인비로 바뀌었다.

박인비는 메이저대회 7승으로 박세리의 4승을 훌쩍 넘어섰다.

박세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도 달성했다.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5승을 거두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 획득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둔 2015년 시즌을 마감한 박인비는 생애 총상금에서도 '우상' 박세리를 뛰어넘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시즌 최종전 CME그룹투어 챔피언십에 시즌 최종전 CME그룹투어 챔피언십에

서 6위에 올라 5만9천915달러의 상금을 받은 박인비의 생애 총상금은 1천258만995달러(약 145억7천508만원)로 불어났다.

박세리의 생애 총상금 1천256만3천660달러를 살짝 넘어섰다. 박인비가 CME그룹투어 챔피언십에서 25위 이하로 밀렸다면 총상금에서 박세리 추월은 내년으로 미뤄야 했다.

박인비는 LPGA투어에서 206경기를 치렀고 박세리는 255개 대회에 출전했다.

생애 총상금 7위로 올라선 박인비는 1천357만8천977달러로 6위를 달리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 100만 달러 차이로 따라붙었다.

박인비보다 7살이 많은 페테르센은 박인비보다 64차례 대회를 더 뛰었다.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모두 15승을 올려 박인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한 덕을 봤다.

생애 총상금 1위는 2천257만달러를 벌어들인 '영원한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몫이다.

/연합뉴스